

ARTIST



The Contradictions and Aesthetics of Black and White

블랙 앤 화이트의 모순과 미학

By Yoon Hye Jung,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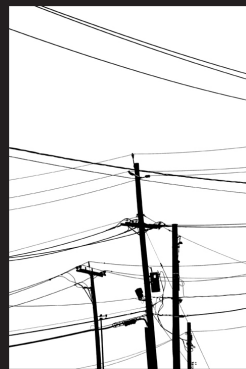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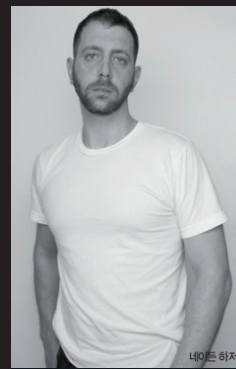
네이든 하저라는 낯선 사진작가는 미국의 부흥을 이끈 산업 요소들을 카메라에 담는다. 극으로 치달은 그의 흑백 사진은 현실을 왜곡하는 모순을 저지름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미학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녹슨 건물들은 예술이 됐다. / 윤혜정, 에디터

Photographer Nathan Harger captures the industrial elements that characterize America's renaissance. His dramatic black and white photography distorts reality into grid-like forms and creates a new aesthetic dimension to the images. Rusty buildings that are usually disregarded are now works of art.

분명히 밝히건대, 난 양리 카르티에 브레공의 사진을 좋아한다. 그러나 순수하고 전통적이며 금욕적인 그의 사진이 현대미술로서의 사진의 발전을 망쳐놓았다는 의견에도 동했기 때문에 실험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거다. 브레송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보여준 중산층 카메라의 역할을 현실 재현과 기록에 붙잡아두었다. 그 와중에 나타는 아론 시스킨드와 같은 추상 사진작가들이 선수자로 대우 받는 건 몬드리안 등을 흉내 내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험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스킨드의 뒤를 잇는 레이 메츠크, 마가렛 부케화이트, 아담 퍼스, 해리 칼라한 드의 사진가들은 사진으로 추상화를 그려 보였다. 어빙 펜 역시 패션사진가이기 전에 사진으로 정물의 한계에 도전한 작가로도 알려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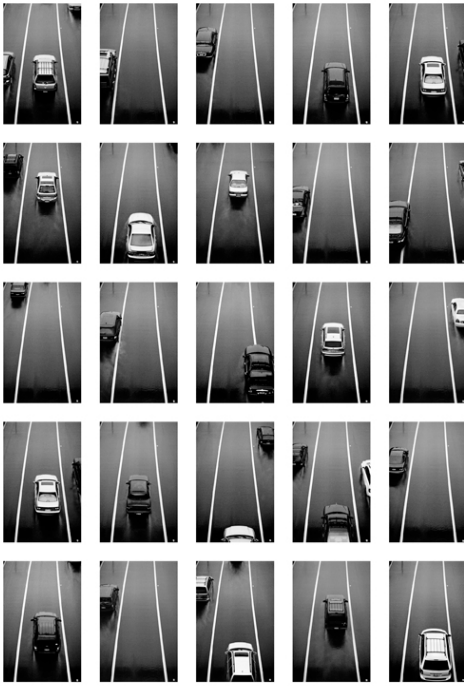
It is very clear that I like Henri Cartier-Bresson's work. It is very raw and traditional, and his abstinent style of photography altered the commentary made by modern photography. There was no room for experimentation during Bresson's time. Bresson represented and reproduced reality just as the Impressionists represented and reproduced their view of reality. Photographer Aaron Siskend emerged onto the scene in the abstract style, and other abstract photographers joined the Mondrian-influenced team of artists and they received constant criticism for their work. They gained much influence from the work of Ray Metzker, Margaret Bourke-White, and Harry Callahan. Irving Penn, before his work in fashion photography, was known for pushing the limits of still life in his photographs.

1976년생의 젊은 작가 네이든 하저 역시 시스킨드의 DNA를 물려받아 사진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가 관심을 가진 대상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사람들의 모습도, 자연의 풍경도 아닌, 그저 산업적 이윤을 위해 세워진 산업적인 건축물들이다. 크레인, 전화전선, 다리, 공장, 탱크, 발전소 등은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대규모 생산 형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단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들. 그는 무미건조하게 존재하거나 시대의 뒤안 길로 쓸쓸히 사라져가는 인프라 스트럭처들을 포착한다. 콘트라스트를 극단으로 밀어붙여 디테일을 없앴으로써 본래의 쓰임새와 물성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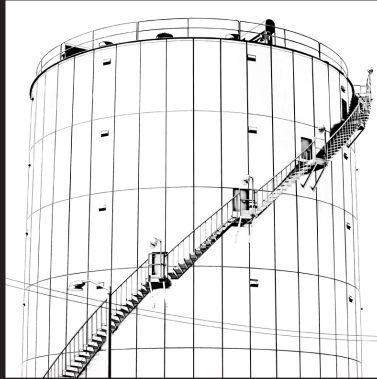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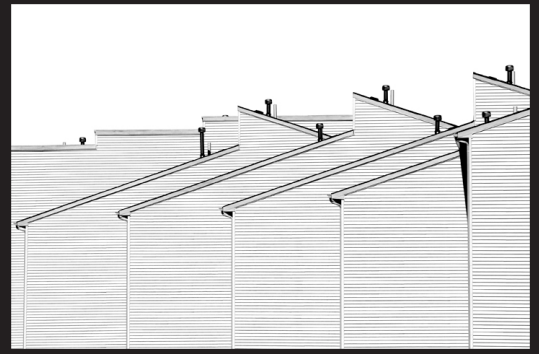
형상성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이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일반적인 미적 기준을 의심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흑백으로 펼쳐지는 이들 건물들은 기하학적이고 조형적인 모습으로 재구성되어 강렬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Untitled(Process Tank)'처럼 대상에 이름 붙이는 걸 꺼려하거나 ('무제') 기능적으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프로세스 탱크') 감수성과 노스텔지어를 말끔히 제거해버린다. 이름이 없으면서도 이름을 가진 이 사진들이 그의 추상 미학에 공고한 감성을 부려한다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역설이다.

Born in 1976, the young artist Nathan Harger inherited the DNA of Siskend and continues to expand the limits of photography. Harger is not interested in beautiful subjects for his photographs. There are no human figures or natural landscapes. They are buildings built solely for industrial profits. Cranes, telephone lines, bridges, factories, tanks, power plants, etc. are the most fundamental elements of his work.



“사실 미국의 공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차라리 쉬울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 이 잔해물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과거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건 곧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Honestly, it might be easier to take a negative position on the industrialization of America. I am reminding viewers of our negative and positive history, and it can be a key to understanding our future.”



네이든 하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 유수의 미술평론지가 쓰는 신인작가 몇 선에 그를 올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잊혀진 요소들에 감성을 부여하고 예술로 변모시킨다. 생각해보면 살아 있지 않은 것을 살아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사진 혹은 예술의 사젠 큰 역할 아니었나.

Viewers should celebrate Nathan Harger's work not because he is highly reviewed by some of the world's leading art critics, but because he takes forgotten elements and turns them into art. He depicts inanimate objects with energy, and that is his greatest achievement in his artwork.

당신의 작품을 보면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공장을 당신이 찍었으면 과연 어떤 이미지가 나왔을까 새삼 궁금해졌다. 직업 과정을 설명해준다면?

때마다 다르지만 주로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베틀레헴과 베스 같은 역사상 산업지역으로 알려진 도시들을 조사하고 여행한다. 사실 미리 정해진 형태나 이미지 같은 건 없다. 다만 이런 신업지구를 그냥 걸어 다닐 뿐이다. 풍부한 선과 기하학적 방식을 가진 형체와 구조를 찾아낼 때까지. 뉴저지를 여행하기도 하는데, 특히 블루 컬러 33 많이 살던 사업두시인 에리자베스를 여행하는걸 좋아한다. 언젠가 크리브랜드 출신의 내친구가 함께 여행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계속 클리블랜드처럼 생긴 장소만 찾아다니더라는 거다.

Looking at your work, I wondered what kind of image would have emerged if you shot photos of Korea instead of America. Could you describe your work process for us?

It is always different, but I usually travel to mainly western Pennsylvania's Bethlehem and areas similar to the city's history of industrialization. I actually don't decide in advance what it is that I want to capture. I just walk around certain kinds of cityscapes until I find an area with sophisticated lines and geometric shapes. I often travel to New Jersey, especially the areas in which blue-collar workers live, like Elizabeth. I'd like to always visit areas that look like Cleveland.

탱크, 고속도로, 크레인, 전화전선, 비행기, 다리, 공장 등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산업을 움직이는 요소들이다. 기분이 되면서도 그 이유만으로 종종 평가절하 당하는 시설들. 이런 산업적 요소들을 예술로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

난 미국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에서 자랐다. 이곳은 20세기 미국 산업의 중심지였다. 내가 촬영하는 피사체들은 오늘날 세상의 풍경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유년 시절의 나를 에워싼 풍경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 대한 나의 관점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학생으로서 처음 사진을 찍을 때부터 난 주저 없이 오랜 시간 나의 흥미를 끌어들인 것들을 직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이 주제에 해 갖고 있는 느낌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가 내가 살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내 작업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나의 젊음의 방식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2006년 무렵, 뉴욕으로 이사를 한 것이었다. 그 곳에서 나는 클리블랜드에서 느꼈던 것들이 아주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Your subjects are not just tanks, freeways, cranes, telephone lines, planes, bridges, and factories, but all of the world industry's moving factors. These are the subjects of your work, and such facilities are often devalued. What prompted you to use these subjects as the focus of your work?

I grew up in Cleveland, Ohio. Cleveland was America's center of industrialization of the 20th century. The subject in my work is the landscape that has been created by today's society. It is also the landscape that surrounded me in my childhood, and it undoubtedly had a huge impact on me. Since I started taking photographs as a student, I without hesitation took photographs of things that sparked my interest. In the process of doing that, I started to understand not just my personal style but how the infrastructure in which I live in has formed a cultural understanding. The most pivotal moment in my life was deciding to move to New York in 2006. I wanted to see if the vibe was different in New York and Cleveland.

당신 작품은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래픽 같기도 하고 추상화 같기도 하다.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는 당신이 사진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은데?

현실을 이동시키는 사진의 능력이야말로 내가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나의 사진들은 추상과 현실주의를 왔다갔다한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날의 새로운 기술 덕분에 나는 사진의 이러한 이동 및 변화의 능력을 앞선 시대의 사진작가들보다 훨씬더 많이 가지고 놀 수 있게됐다.

Your work seems more like graphic design and abstract art than photography. Rather than 'representing' reality, your work seems to 'reconstruct' reality. Somehow, the medium of photography as we understand it to be is still recognized in your work.

Actually, the photographic method I use is something I am continuing to explore. My photography goes back and forth between abstraction and reality. Thankfully, today's new technology allows me to advance my skills and play with my photographs more than previous photographers were able to.

워낙 콘트라스트가 강한 흑백 사진이어서 그런지 디테일은 없어지고 형태만 남는다. 그 형태가 바로 기존에는 보지 못했다는 느낌을 이끌어내는 것 같다. 이런 형식을 취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사진 속의 하이 콘트라스트는 내가 촬영하는 어수선한 문화의 풍경을 없애고자 하는 길망 때문에 생겨났다. 나는 관람객에게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미니멀하게 보여줄 수 인공적인 모습이 가장 심플하게 드러나는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본질에 가장 강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랄까.

The details are lost in your work, leaving it with just the form. Maybe this is a result of the high contrast of black and white. Forms that were not visible are drawn out to the foreground. Is there a special reason that you format your images this way?

The high contrast is a result of my work process in which I remove the excess untidiness from the images. I show my viewers a formal and minimal image, and I struggle to create simplicity. I guess you could say it is an effort to intensely access the essence.

뉴욕 혹은 뉴저지 등에서도 촬영해오고 있는데, 그곳들은 뉴욕 같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 도시란 어떤 영감을 주는 공간인가?

예를 들어 '무제(홀딩 패턴즈)'와 같은 작품에서 격자는 뉴욕이 내 작업에 주는 영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맨해튼에 와보면 알겠지만 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가로 세로로 체계적으로 건설되어 있다. 처음 뉴욕에 왔을 때에는 서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와 건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존재하는 모습에 미로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뉴욕 시를 둘러싼 3개의 주요 공항 덕분에 당신은 맨해튼 어디에서든, 언제든 하늘을 올려다보면 비행기를 볼 수 있다. 머리 위를 나는 비행기를 목격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나 반복되는 패턴들은 내 생각을 항상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들은 지속적인 세계 경제, 산업 그리고 사람들의 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You photograph locations in both New York and New Jersey. Some of the photographs don't look like they were taken in New York. What inspires you in the city?

If you take for example, "Untitled (Holding Patterns)" there is a similar work because the grid pattern inspires me very directly. If you visit Man-

hattan you'll understand, but the entire city is set up as a grid. When I first got to New York, I noticed that all the buildings look alike and line the streets on both sides like a maze. Thanks to the three boroughs that surround Manhattan and nearby airports, you can always see airplanes flying above. Witnessing airplanes flying overhead regardless of where I am in the city is a reoccurring theme in my work. The airplanes represent ongoing global economic and industrialization as well as the flow of people.

'무제(오버 패스)' 같은 작품에서 사진을 무늬로 배치한 것도 비슷한 이유인가?

격자 구조는 대도시에서 사는 것에 대한 생생한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교통 시스템, 다리 빌딩들은 누군가가 이해할 수 있는 반복되는 패턴을 무한하게 창조한다. 거기에는 공간과 시간의 시각적이고도 경험적인 패턴의 상광관계도 존재한다. 도시에서의 매일 매일의 습관처럼 처음에는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이 보여진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은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격자로 배열된 사진은 이런 경험에 밑줄을 그어주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 삶의 패턴과 일상적인 인들은 강조해준다. 아마도 관람객은 도시 속에서 겪는 역동적인 경험과 똑같은 액션, 변형을 기대하면서 이 격자구조의 사진을 볼 거라 생각한다.

In works like 'Untitled(Overpass)', why did you organize the photographs into a grid?

The lattice structures can be seen as a vivid answer to living in such a large city. The traffic system, bridges, buildings, can all be understood as clear patterns. There is no sense of time or location, just the patterns themselves. Living in the city makes you very aware of the seemingly consistent grid-like patterns as if it was habitual. However, upon a closer look, you find there are eccentricities amongst the patterns. In order to draw a specific experience from a grid-like pattern, I emphasize the passing of time, pattern of life, and people following routines. A city with heavy tourism has a dynamic experience and action, so you can anticipate large variations within the grid.

미국의 부흥을 이끈 산업시대를 기억하고 그 시대를 이룬 숏한 이름 없는 건물들과 함께 이를 만들고 사용해온 이름 모를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나름대로 예상해보기도 했는데, 어떤가?

맞다. 20세기의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한 도시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난 공업 경제의 정점과 쇠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국 북부의 사양화된 공업지대를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데, 1976년생인 나는 이 쇠퇴사 나의 친구, 가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바로 옆에서 직접적으로 봤다. 나의 사진들에서 감성이 느껴지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경험들인 인프라 스트럭처들이 내게는 매우 개인적인 피사체임을 증명해준다.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led to America's renaissance is remembered for the construction of countless buildings, and the opportunities that it gave for prospective job seekers. Is your work a way to remember those who worked to create those structures?

Yes. The 20th century was solely dependent on industrialization and the city life was defined by it. I felt like I was able to witness the rise and decline of the industrial economy. The decline of the U.S. industrial economy is referred to as the 'rust belt', and my family and friends experienced this decline directly. It is not easy to capture the emotion in my photography, but the infrastructure of the experience and history of the locations are always evident in my work.

그러게 말이다. 누구도 예술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녹근 잔해물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작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매우 궁금하던 차였다.

난 내가 지금까지 촬영한 모든 사진, 장소, 시간, 느낌을 기억할 수 있다. 작품을 만들 때 공업적인 문화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사실 미국의 공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차라리 쉬울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 이 잔해물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과거를 상기 시켜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건 곧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프로세스 탱크’처럼 카메라에 담아 내고자 하는 모든구성 요소들이 그 풍경 속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도록 사진과 결합되었다고나 할까.

I am always filled with wonder when I think about the work process of the photographer as he fills his camera with images of otherwise uninteresting subjects.

I can remember every image, location, time, and feel of every photograph I have ever taken. When creating a project,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image to include all components of the industrial culture. Honestly, it might be easier to take a negative position on the industrialization of America. I am reminding viewers of our negative and positive history, and it can be like a key to understanding our future.

그 누구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는 심미안이 흥미롭다. 이것이 당신 사진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나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른 아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거다. 내게는 그것이 휴일의 저녁 노을도 아니고, 어렸을 적 뛰어놀던 완만하게 경사진 산도 아니라는 것뿐이다. 내 기억에 박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연하게 발견한, 한 때 번창한 공장이나 잡초 무성한 고물집적소다.

You are able to turn very average, uninteresting objects into very aesthetically pleasing images. I believe this to be your way of extending the boundaries of photography.

It's not just me. Other artists seek locations that their peers would not look, and they are able to find beauty in them. I used to find new locations as a kid growing up. I have memories of sites that I discovered like factories, and forests.

그런 점에서 난 추상 사진가가 아론 시스킨드의 작품을 떠올렸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시물에 미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의 작품이 지극히 추상적이지만 실은 사실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신은 그에게서 받은 것이 많은 것 같아.

아론 시스킨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진가다. 그는 물체 각각의 존재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줬다. 낡은 벽, 말라비틀어진 페인트 등을 접사 촬영한 작업은 물론이고 공중 부양하는 사람의 인체를 흑백으로 표현한 ‘공중부양의 기쁨과 두려움’ 같은 작품을 특히 좋아한다. 이미지와 리얼리티를 실험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멀티플 이미지를 만든 레이 메츠커도 나의 우상이다.

Your work reminds me of Aaron Siskend. Simple, seemingly uninteresting subjects are given such high visual aesthetics. Your work is very abstract, but based on a real, thorough history. It is in this way that I feel that you two are alike.

I respect Aaron Siskend very much, and I regard him 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photographers. Each object's presenc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another, and his photographs show that. Old walls, shrunken paint, and close-up shots are a great, but the depiction of the levitating human body in black and white in his work ‘The Joy and Fear of Levitation’ is a photograph I especially appreciate. I also appreciate Ray Metzker’s manipulation of two images combined together to create a sense of experimentation.

샘 아벨이라는 사진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의 최고의 작품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찍은 것들이고, 그 작품은 내가 그 대상과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에 좌우됐다.” 나는 이 말이 당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봤다. 얼핏 보아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대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다.

내 생각을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찍은 사진들이 무의식적인 결과물로 보이냐? 그 어떤 것도 무의식적으로 완성된 것이 없다. 내 작품은 형태와 선을 보는, 그 현장을 경험하는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된다. 때때로 내가 우연히 발견한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서 상상된 것들이다. 예를 들자면 ‘알루미늄 슬라이딩’은 내가 여러해동안 찾던 모습이었다.

Photographer Sam Abell once said, “My best works were taken mostly unconsciously,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material takes effort and skill.” I was wondering if this quote could be applied to you. Upon first glance, because the subjects are not beautiful,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image.

My thoughts are a bit different. Do my photographs look like they were unconsciously shot? None of my works were completed unconsciously. My work emphasizes form and lines, and the moment I come across a scene with the right lines the work is developed. Sometimes there are the surprise shots, but even those were pre-imagined in my heart. For example, ‘Aluminum Sliding’ was an image I had been looking for many years.

아티스트가 작품을 세상에 말을 거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사진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나는 내 작품이 이야기적이거나 특정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는다. 다만 산업적인 풍경의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 자치 판단을 위한 이미지를 그려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바라는 건 보는 이들이 산업에 대한 그들만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온전히 산업과 이윤을 위해 존재했던 것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면 나로서는 감사한 일일 거다.

If an artist engages the work in conversation with the world, then what is it that you want to say through your work?

I don't believe my work necessarily as a story to tell from a particular point of view. I try not to portray the industrial landscape in a positive or negative image, and have it be self-evident. What I want is for the viewers to understand the industrialization from their own experiences because interpretation of the work can be subjective. I would be happy if viewers can see that even an industry driven by profit can have the potential to be art.

네이든 하저의 한국 첫 개인전은 9월11일 부터 10월10일까지 공근혜 갤러리에서 열린다.

Nathan Harger's first Korean exhibition is from September 9th until October 10th at Gallery K.O.N.G.